

광주지검 “위증사범 근절될 때까지 엄단”

지난해 61명 적발 전국 최상위...올해들어 8명 검거 '건설사주 납치사건' 등 억울한 피해자 적극 예방키로

#1.A씨는 2017년 9월 순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뒤 곧바로 항소했다. 피해자 B씨의 뺨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정에 선 A씨는 항소 직후 지인 C씨를 만나 "피해자 B씨가 나를 먼저 넘어뜨려 (내가)방어를 위해 뺨을 때린 것"이라고 증언하도록 입을 맞췄다.

하지만 검찰수사결과, 지인 C씨는 폭행 사건 현장에도 없었던 가짜 증인이었다. 검찰은 지난 18일 A씨를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하고, 위증사실을 자백한 C씨에 대해 선약식기소했다.

#2.2006년 11월 광주시 남구 모 호텔 사우나에서 모 건설회사 사장이 국제 PJ 파 부두목급 간부의 지시를 받은 조직폭력배들에 의해 납치된 사건이 발생했다. 납치폭력에 가담한 16명 중 15명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았으나, 범행차량 운전을 맡았던 D씨는 10년간의 도주 끝에 지난해 붙잡혔다.

1심에서 징역 8월형을 선고받은 D씨는 기각된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당시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공범 2명을 찾아가 "자신은 사건 내용을 모르고 현장에 간 것으로 해

달라"고 하위증언을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최근 추가 수사를 통해 이들의 위증범죄를 밝혀내고, 각각 위증교사와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이 선처 없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위증사범 근절에 나서고 있다. 위증은 재판부의 오판을 유발해 범죄자의 처벌까지 면하게 할 수 있는 중대범죄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25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위증사범 61명을 적발했다. 이는 전국 지방검찰청 중 최상위 수준의 적발 실적이다.

광주지검은 올해도 4월 현재 위증사범 8명을 적발하고, 1명을 구속한 상태다. 광주지검은 위증사범 적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피고인 등이 처벌을 면하기 위

한 위증 교사 ▲가족, 지인 등 인정에 얽매인 위증 ▲피해자가 피해 진술 후 심경변화 등으로 피해를 축소하는 유형 등으로 범죄유형을 세분화한 뒤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고 있다.

광주지검은 앞으로도 지속·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악질적인 위증사범을 숙아내고,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정수봉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위증범죄는 국가의 수사력 낭비는 물론 범죄자를 처벌에서 벗어나게 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위증을 하면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사회전반으로 확산돼 위증범죄가 근절될 때까지 수사를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내 일자리는 어디에... 25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회 광주·전남합동 일자리 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참가기업들의 채용 공고를 살펴보고 희망하는 일자리를 찾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나이롱 환자’ 조직적 유치 일당 무더기 적발 광주북부경찰, 한의사·브로커·가짜환자 등 164명 검거

보험금을 노려 속칭 '나이롱 환자'를 조직적으로 유치한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북부경찰은 25일 허위 입원 환자를 유치해 보험금여 등을 가로챈 브로커 A(55)씨를 보험범죄방지 특별법 위반·사기·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 허위

환자를 입원시킨 뒤 요양급여비를 받은 광주지역 한방병원 7곳의 병원장 13명과 또 다른 브로커 1명, 허위 입원환자 149명 등 총 16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7년 7월까지 허위 환자 63명을 북

구의 모 한방병원에 소개해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환자인원비 10% 정도를 받아 챙긴 혐의다.

또한 한방병원장들은 지난해 환자들이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 보험료를 청구해 1억2000여 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타낸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보험설계사인 A씨는 자신의 보험에 가입한 이들에게 "입원하지 않고도 보험금을 받게 해준다. 외출·외박도 자유롭다"고 허위 입원을 권유한 것

으로 드러났다.

의사들은 환자들이 매일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 약제비, 입원 식대, 입·퇴원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짜환자 149명은 대부분 브로커나 입소문을 듣고 허위입원을 했다. 이들은 가정 주부 등 무직자가 가장 많았으며,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이용해 보험사로부터 4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魔의 도로’ 무진대로서 또 다중추돌사고

7중 추돌...인명피해는 없어 출근길 차량 뒤엉키며 정체

찾은 교통사고로 운전자들 사이에 '마(魔)의 도로'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 무진대로(광주일보 2019년 4월 16일자 6면)에서 출근길 다중추돌 사고가 또 발생했다.

25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0분께 광주시 서구 덕흥동 여중대교 시청 방면 편도 4차로에서 차량 7대가 잇따라 부딪혔다.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파손된 차량들로 인해 차들이 뒤엉켜 출근길 차량 정체 현상이 발생했다. 경찰은 차량 4대가 정체 구간에서 기다서다를 반복하다가 추돌한 뒤,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한 차량들이 연이어 들이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해당 구간은 최근 3년간(2015-2017년) 공식적으로만 총 13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32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검찰, 고흥군 매입 윤봉길 의사 유묵 가짜 논란 수사

고흥군이 구매한 윤봉길 의사의 유묵(遺墨)이 가짜라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광주지검검찰청 순천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윤봉길 의사의 유묵을 고흥군에 판매한 매도인 A씨와 담당 공무원 B씨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

검찰은 A씨가 고흥군에 가짜 윤봉길 유묵을 판매하는 등 6억 여원의 금전적 이득을 봤다고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국립수사과학연구원의 감식결과와 고흥군이 전문기관에 의뢰한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보강 수사를 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당시 유묵 구매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

B씨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고흥군은 지난 2015년 A씨와 윤봉길, 안중근, 안창호, 김구 선생 등 함양에 국지사 6인의 글씨와 족자, 서문, 서첩 등 6점을 10억원에 매매계약을 했다. 이 가운데 윤봉길 의사의 유묵 '장부출가생불환(丈夫出家生不還)'이 위작이라는 주장이 제기됐고 고흥군이 잔금 6억원을 지급하지 않아 A씨가 매매대금 지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결과 1심인 광주지법은 "윤봉길 의사 유묵은 진품이 아니다"며 고흥군의 손을 들어줬고, A씨는 곧바로 항소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

나철 선생 후손들, 영화 '사바하' 제작사 고소

독립운동가이자 대중교 교조인 흥남 나철(1863-1916) 선생의 후손인 나주 나씨 직장공파 대중회 등은 25일 나철 선생의 사진을 무단 합성해 영화에 사용한 영화 '사바하' 제작사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나철 선생 사진의 존엄을 도려내고 남의 얼굴을 갖다 붙여 사비비 교주로 둔갑시킨 과정과 배경 의도를 거짓 없이 고백하고 즉시 영화상영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대중회 등은 상영 중인 영화화면을 즉시 교체하고 상영 전에 사과문을 발송할 것과 공중파 방송·일간지에 5만 이상의 사과문을 게시할 것도 요구했다.

또 나철 선생의 명예회복을 위해 나철 선생의 일대기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방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마약 소지했다 걸린 클럽에 또 갔다가...태국인 2명 '털미'

○-마약을 지니고 클럽에 들어가려던 외국인들이 입구 보안요원의 몸수색에 걸려 달아난 뒤 2달 만에 같은 클럽을 다시 찾아가다가 쇠고랑.

○-25일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호삼)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 등 태국인 2명은 지난 2월 광주의 한 클럽에 필로폰과 합성마약인 야바(YABA)를

몸에 지니고 입장하기 위해 소지품 검사를 받던 중 가방에 보관 중이던 마약이 들켜져 달아났으며, 클럽 측은 빼앗은 마약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

○-A씨 등은 두달여가 흐른 이달 초 마약없이 같은 클럽을 다시 방문했다가 결국 붙잡혔는데, 검찰 관계자는 "이들을 기억하고 있던 보안요원이 클럽 입장을 허용한 뒤 재빠르게 신고를 해 검거할 수 있었다"고 설명.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노안수술 받으면
돋보기 없이
J1, J2 글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신세계안과 문의 1566-9988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70~50% 할인 이벤트
"불만족시 1달 안에 100% 환불"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산수오거리지점
062) 362-3336 돌고개지점